

‘다시, 민주주의로’ 섹션 공개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위기 정치 상황 다룬 세계 6개국 6편 다큐멘터리 상영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지난 1일 상영작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과 지속을 염원하는 ‘다시, 민주주의로’ 섹션을 공개했다.

특히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면서 이번 섹션은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과 지속을 바라는 열원의 섹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이번 섹션 상영작에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사태를 겪은 한국과 비슷하게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었거나 겪고 있는 세계 6개국의 정치 상황을 다룬 다큐멘터리 6편이 상영된다.

우선, 라모나 S. 디아스 감독의 <필리핀 민주주의의 불씨>는 지난 3월 반인도적 살상 범죄 혐의로 체포된 전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와 그의 독재 정권에 맞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대중 운동을 조직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당시 부통령이었던 레니 로브레도와의 그와 함께 민중 운동을 전개한 필리핀 민중의 모습을 담고 있다. 비슷하게 헨드 메데르 감독의 <

수단, 우리를 기억해 줘>는 가부장적 사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한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30년간 지속한 군부 독재에 맞서 거리로 나선, 2019년 수단 시민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마레코 술리크 감독의 <슬로바키아의 희망, 주자나 차푸토바>는 인권 변호사 출신 주자나 차푸토바가 부패한 권력에 맞서 저항한 끝에 슬로바키아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고 “나는 지배하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는 말을 남기며 재선 도전을 포기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5년간을 밀착 취재한 작품이다.

상영작 중 스티브 핑크 감독의 <마지막 공화당원>, 산드라 코쿠트 감독의 <브라질 대선의 기록>, 파비앵 그린버그, 보르드 세에 뤼닝 감독의 <노르웨이식 데모크레이지>는 극단적 양극화의 시대에 민주주의가 겪을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을 보여주며 한국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마지막 공화당원>은 신념을 지키는 정치인에 대한 다큐멘터리로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 이후 공화당원 애덤 킨징거(Adam Kinzinger)가 트럼프 탄핵에 찬성

표를 던지고 임기를 마칠 때까지 겪은 일을 기록했다. 비슷하게 <브라질 대선의 기록>은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기부터 시작해 대선 부정선거 의혹과 함께 몰라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극우 지지자들의 국회의사당과 대법원 습격 사건 등 격동의 시기를 보낸 브라질 정치 상황을 담고 있다. <노르웨이식 데모크레이지>는 이슬람교도들을 향한 노르웨이 사회의 혐오 스톱치를 다룬 다큐멘터리로 증오 확산의 도구로 악용되는 표현의 자유와 극단주의로 복잡한 사회 문제를 겪고 있는 노르웨이 사회를 그린다.

전진수 프로그래머는 “2024년 12월 3일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봉착했고, 그 혼란과 후유증 역시 얼마나 더 지속될지 가늠이 되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기획 의도를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홈페이지(<https://www.jonjufest.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김사은 수필가, 네 번째 수필집 출간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하여’ 출판기념회 · 삐뚤 콘서트 26일 개최

전북임음방송 미디어 어쿠장으로 활동 중인 김사은 수필가가 네 번째 수필집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하여’를 출간했다.

이를 기념해 오는 26일 오후 3시, 전주시 경원동에 위치한 원불교 전북교구 4층에서 출판기념회와 더불어 작지만 따뜻한 음악회, ‘삐뚤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일상과 삶에 대한 사유를 담은 김 작가의 신작 수필집을 소개하는 자리이자, 그녀가 직접 무대에 올라 노래하는 이색적인 음악회로 꾸며질 예정이다.

김사는 작가는 “몇 해 전 전주국제영화제 축하 음악제에서 소프라노 김민지의 ‘진달래’를 듣고 가슴 깊이 울림을 받았다”며, “그날 이후 노래에 매료돼 전북대 평생교육원에서 송주희 교수님의 지도를 받으며 노래 공부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김 작가의 직접 부르는 우리 가곡과 함께 수필집 속 이야기들을 소개하며, 관객들과 진솔한 감성을 나눌 예정이다.

‘노래와 글의 공존’을 시도한 이번 행사는 문화 예술과 인문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하여’는 사소한 것들 속에서 삶의 의미를 되짚는 수필로, 김 작가 특유의 따뜻한 시선과 서정적인 문체가 돋보인다. 특히 방송 현장에서의 경험과 일상에서 걸어 올린 단상들을 담담히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김사는 작가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조용한 순간을 함께 나누고 싶다”며 “부디 따뜻한 봄날의 오후, 귀한 걸음 해주시면 진심을 담아 노래로 인사드리겠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행사 장소는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192-4(구 주소는 경원동 3가 69-1)이다.

/이만호 기자

청년문화예술 주문배달서비스 사업 참여자 모집

전북문화관광재단, ‘청년예술인’ · 기업 · 기관’ 2개 부문 신청 접수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도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문화예술 주문배달서비스(이하 청년예술퀵)’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예술 퀵’은 문화예술 접근성이 낮은 근로자, 특수직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청년예술인이 직접 찾아가 공연을 선보이는 공연 배달 서비스다. 이 사업은 청년예술인에게는 공연 기회를 확대하고, 참여 기업·기관에게는 힐링과 소통의 시간을 제공하며, 올해 총 42회 이상의 공연을 운영할 계획이다.

모집은 11일부터며, 청년예술인과 기업·기관

두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청년예술인은 25일까지, 기업·기관은 5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청년예술인 신청 자격은 도내에 거주하거나 도내 학교를 졸업한 만 18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구성된 4인 이하 소규모 공연팀이다. 특히, 올해부터 팀당 공연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해 더욱 많은 공연 기회를 제공하며, 공연활동비는 팀 규모에 따라 회당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기업·기관 모집은 공고일 기준, 도내에 사업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평일 공연 관람이 어려운 근로자, 경찰 및 소방관, 문화 취약계층 등이 근무하거나 생활하는 곳을 포함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공연 가능 일자를 제출하면, 재단이 이를 청년예술인에게 공유해 일정을 조율하고 매칭을 확정한다. 매칭이 완료되면 청년예술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 1~2회의 공연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청년예술 퀵’은 전문 공연장이 아닌 직장, 학교, 병원, 모임 등 도민의 일상 공간을 공연 무대로 활용하며, 청년예술인이 예술을 직접 배달하는 사업으로, 일상 속 특별한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모집 공고와 신청서는 재단 누리집(www.jc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이메일(jct7445@gmail.com)을 통해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 익산시, 지역 간 공연 콘텐츠 교류 활발

전북특별자치도가 익산시와 손잡고 지역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에 본격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2일 오후 3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익산시립예술단의 창작 브랜드 공연 ‘웨스트 & 이스트(West & East) - 서쪽남자 & 동쪽여자’를 초청해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지난 3월 익산예술의전당에서 공연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제작공연 ‘태권유랑단 녹두’의 성원에 대한 화답 형식으로 기획됐다. ‘태권유랑단 녹두’는 당시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번에는 익산의 대표 콘텐츠가 전주로 무대를 옮겨, 지역 간 공연 콘텐츠 교류에 의미를 더한다.

‘서쪽남자 & 동쪽여자’는 익산의 대표 설화인 ‘서동요’에 착안해 2023년 처음으로 무대에 오른 창작 공연으로, 국경과 신분을 초월한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익산시립예술단 소속 합창단, 무용단, 풍물단 등 3개 예술단이 총출동하며, 서정적인 오페라 아리아와 웅장한 합창, 한국적

미감이 담긴 무용, 화려한 풍물 연희가 어우러진 수준 높은 장르 융합 공연을 선보였다.

전북자치도는 공연 초청을 통해 지역 간 예술단체 간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고, 도민들에게는 차별화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석 전북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익산시 대표 브랜드 공연을 전주 무대에서 소개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지역 문화 콘텐츠가 상호 순환하며 교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해 지역문화 생태계의 공동 성장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국팔도 한지기행’ 떠나볼까?

전주문화재단, 문화재 관람 · 한지 전시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이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전통 한지의 역사와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문화기행 프로그램 ‘전국팔도 한지기행’을 진행한다. 이번 11일 밝혔다.

오는 30일 전주천년한지관에서 진행되는 기행은 전주에서 출발해 대전시립박물관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문화재 관람과 한지 관련 전시 체험이 이뤄지는 교육형 당일 프로그램이다.

주요 방문지인 대전시립박물관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2105호로 지정된 ‘나신길의 한글편지’를 관람할 예정이다. 이 편지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지 편지로, 15세기 한지 제작 기술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귀중한 유물이다. 참가자들은 이 유물을 통해 전통 한지의 우수한 보존성과 제작 기법, 그리고 조선 시대의 문서문화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얻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박물관에 전시된 한지 유물과 다양한 작품들을 둘러보며 한지의 용도, 기술, 예술적 가치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전통 종이로서의 한지를 넘어, 오늘날 문화유산으로서 한지가 지닌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 신청은 12~23일까지 전주천년한지관 누리집(jnhm.kr)에서 가능하며, 참가비는 1인당 2만 원이다. 참가비에는 교통비, 입장료, 식



비(식)가 포함됐다. 행사에 대한 문의는 전주천년한지관(063-281-1635)으로 하면 된다.

최락기 대표이사는 “한지는 단순한 전통 종이를 넘어, 오랜 세월을 견디며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낸 귀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한지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직접 보고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전주매일 캠페인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릉단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일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 · 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 · 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 때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